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9월 1일 개막...하나된 건축사, 변화에 □ 더하다

국내 최대 규모 건축행사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하나된 건축사, 변화에 □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9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다.

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의무가입 건축사법 통과 후 열리는 첫 건축사대회로, 코로나19 이후 건축사들이 처음 모이는 대규모 행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이런 의미를 담아 이번 대회에서는 건축사들이 건축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보다 품질 높은 건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인으로서의 사명·의지를 공고히 다지고,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윤리강령 선포식'도 열린다.

이번 선포는 건축사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번 대회에는 류춘수 건축사와 반 시게루 등 다양한 강연자들의 다채로운 강연도 펼쳐지며, 시·도 건축사회 작품 등 전시 그리고 건축 골든벨과 브릭하우스 등 대중과 함께 하는 행사도 준비됐다.

대회 첫날인 1일에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윤리강령 선포식, 건축계를 대표하는 류춘수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의 기조강연(윤리교육)과 함께 양내원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교수의 특별강연 (전문교육)과 해외단체장 포럼이 펼쳐질 예정이다.

2일에는 2014년 프리츠커상 수상자 이자 재난건축의 상징적 인물 반 시 게루의 특별강연과 노장(老莊) 철학의 대가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전문교육 강연자로는 양내원 교수 를 비롯해 장성주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와 공정섭 건축사(주.지앤에이 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제주 출신 김석운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김건축)·양성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아키제주)와 김종헌(배재대)·김태일(제주대) 교수가 나선다.

대회 일정				
구분	08. 31. 수	09. 01. 목	09. 02. 금	09. 03. 토
10:00 ~ 11:00		특별강연(전문교육) 양내원 / 한라홀	특별강연(전문교육) 반 시게루 / 탐라홀	브릭 하우스 (도민행사) 삼다홀
11:00 ~ 12:00			특별강연(윤리교육) 최진석 / 탐라홀	건축 골든벨 (도민행사) 한라홀
12:00 ~ 13:00				
13:00 ~ 14:00		홍보영상 상영 / 탐라홀	건축 영화제 우수작 상영 301호	전문교육 공정섭 / 한라홀B
14:00 ~ 15:00		개회식 / 탐라홀		특별강연(전문교육) 김누리 / 한라홀A
15:00 ~ 16:00		기조강연(윤리교육) 류춘수 / 탐라홀		전문교육 김석운·김종헌·김태일·양성필 / 한라홀B
16:00 ~ 17:00			특별강연(전문교육) 장성주 / 한라홀A	
17:00 ~ 18:00		해외단체장 포럼 / 402호		
18:00 ~ 19:00	제주의 밤(전야행사)			
19:00 ~ 20:00	매중 글래드 제주			
전시프로그램	17개 시·도 건축사회 우수작품 전시회, 제주우수건축 특별전, 신진건축사 작품전, 스폰서 존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우수작품 전시, 제주우수건축 특별전, 신진건축사 작품전 등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의 기회도 만나볼 수 있다.

시도건축사회 작품전에서는 각 시도 의 대표 작품 50점이 전시되며, 신진건축사 우수작품은 14개 그리고

“
시·도건축사회 작품전시,
제주우수건축·신진건축사작품전
전야행사와 해외단체장 만찬,
건축영화제 우수작 상영도

”

“
국내의 인플루언서가 제주서 한자리에
깊어진 통찰과 지혜 공유

”

개최지 제주 특성이 담긴 제주특별전에서는 약 30개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개막 전날인 8월 31일 오후 6시부터는 전야행사 '제주의 밤'이, 이어 개막일인 1일 오후 5시부터는 해외단체장 포럼과 만찬이 연이어 개최된다. 2일 오후 1시부터는 건축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개회식은 대회 첫날인 1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탐라홀에서 개최되며, 행사 마지막날인 3일 오전에는 건축골든벨(탐라홀)과 브릭하우스(삼 다홀) 등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건축사대회서 만나는 건축 인사이트 강연 리더십·현안 해법·이슈 분석 해안 엿볼 기회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2022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건축 분야 국내의 인플루언서, 연사들이 사회·정치·교육·철학·리더십 등에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건축현안에 대한 진단·해법과 더불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제주건축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9월 1일에는 건축계를 대표하는 류춘수 건축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병원 건축 분야 권위자로 손꼽히는 양내원 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의 특별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다음 날인 9월 2일에는 세계 건축계의 권위 있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이자 종이 건축의 대가로서 '재난 건축의 대명사'로 통하는 일본의 반 시게루의 특별강연과 노자의 도덕경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과 EBS 노자 인문학 특강으로 인문학 열풍을 일으켰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의 특별강연,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이자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인 김누리 교수의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또 같은 날 한국건축규정의 이해와 건축허가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대한건축사협회 공정섭 이사의 강연과 더불어 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이자 카이스트 미래도시포럼 초대 위원장인 장성주 교수의 '사이버 물리 시스템 및 스마트 공간'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아울러 '글로벌 시대의 지역 건축의 새로운 탐색과 지역 건축사의 활동'을 주제로 제주를 대표하는 건축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장을 역임한 ▲김석운 건축사(김건축 건축사사무소), 건축사학자이자 덕수궁 석조전과 명동성당 보수를 맡았던 근대건축 복원 전문가인 ▲김종헌 배재대학교 교수, 제주건축의 역사성에 집중하며 건축학자로서 목소리는 내고 있는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건축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성필 건축사(아키제주 건축사사무소)의 강연이 9월 2일 준비돼 있다.